

###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 삼보이야기(4)-승가

불교의 세 가지 보배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강조되는 것이 승보이다. 승보의 승(僧)은 승가(僧伽)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그리고 승가라는 단어는 인도어인 상가(Sangha)를 음역한 말이다. 때문에 한문 글자의 의미 보다는 범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승가라는 단어는 교단이나 집단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본래 '밀접한 결합'을 의미하는 말이었으며, 부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이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따라서 부처님은 이러한 의미를 소중하게 여겨서 불교도들의 모임, 혹은 그들의 집단을 승가라 명명한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도시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에 시행되고 있었던 화백회의처럼 만장일치 형식의 협의 내지 의견의 수렴과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처님은 교단을 이끌게 되면서 바로 도시국가들의 전통적인 통치 방법 중의 하나인 승가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물론 당시는 도시국가에서 전체왕권시대로 전환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족을 통합한 통일

과 약속에 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승가를 한문으로 의역해서는 대중이 화합한다는 의미의 '화합중(和合衆)'이라 풀이했다. 또한 상가의 구성원 각자는 평등했으며, 그렇기에 계급도 통솔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훌륭한 동행자로서 각자를 격려하고 화합하며 수행에 매진할 뿐이었다.

물론 초기불교시대에 있어서 승가의 구성원은 주로 비구들이었다. 그러던 것이 비구니의 출가와 함께 2부종이 되며, 아사의 출가로 인해 그의 부모와 아내가 재가자로서 부처님에게 귀의하게 된다. 여기서 재가자들은 출가자들의 인도를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도리였으며, 출가자들은 어엿하게 수행하며 스승으로서 재가자들의 귀의를 받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임무였다. 따라서 상가는 출가자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승가가 불교의 세 가지 보배가 된 이유는 승가가 지니고 있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불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전진기지라는 본질적 임무는 보배 이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 "승가에 대해 굳은 신념을 품노라.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능숙

### 화합 · 격려하며 수행하는 '동행자'

### 비구중심...점차 비구니로 확산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며, 그들은 더욱 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웃 나라를 침범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쟁이란 어떠한 명분이 있든지 사람들의 피를 요구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전체 왕권의 강화와 전체 왕국의 확장이 빚은 댓가였다. 죽음과 그 희생의 결과 수립된 왕조들은 왕족의 권력과 부의 팽창을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평범한 서민들은 강제와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부처님은 전체왕권의 폐해를 직시하게 된다. 그것은 강압과 비례하는 인간성의 상실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성을 최대한 존중받으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과거 수많은 인도의 부족들이 채택해왔던 공화제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상가였으며,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이 공화제의 법칙에 따라 승단을 운영하고 대중들을 교화한다면 당신이 꿈꾸던 세상의 건설이 결코 무망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승가의 운영 형식은 강제하지 않는 것이었다. 각자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해 주되 공동의 이념

하게 행하며, 올바르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굳게 행하도록.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공양 받아야 하며, 존경받아야 한다. 합장해야 할 세상에서 위없는 복전이니라" (상승부경전12)고 말씀하고 있다. 물론 이상의 인용문에서 승가의 이상에 대해 굳은 신념을 지니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평등과 자유, 생명의 존엄성 호지와 자비의 확산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문제에 대한 불변의 신념이었다. 동시에 그들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 가는 도정 속에서 취하게 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인용문에서 말하는 승가는 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확대해석하면 2부종인 비구와 비구니를 가리키는 것이다.

<별역잡이화경>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출가임을 밝히고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시실 때 어떤 천인이 찾아와 나는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남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참아내기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남에게 베풀기 어려우며/ 곤경에 빠져서 재물을 지키기 어려우며/ 젊은 나이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욕을 끊고 출가하기 어렵다."

<부처 삼일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 중성스님

(임제선원 조실)

불교 이전의 인도 사상의계 양대 조류는 유리론적(唯理論的) 관념론과 요소론적(要素論的) 유물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존재의 본질을 물질로 보는 유물사상과 오늘날 신본주의를 근본으로 삼는 서양의 종교사상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논리에는 유일신의 인격적 성리에서 전변분화한 현상계가 명과 무명, 선과 악의 근원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적 물질의 요소가 유기적 생명체의 정신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불합리성도 갖고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삼계유심 심조만유(三界唯心 心造萬有) 3계에는 마음 뿐이니, 마음이 일체 현상을 만든다는 마음 도리에서는 모순과 불합리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한량 없는 광명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허망함이 없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여임심이라 하고 진여법계라고 하며 진여자성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의 근본목적은 일체법의 근본인 마음을 밝혀서 진여자성을 보는 명심견성(明心見性)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본다에 있습니다. 때문에 본래 청정한 나의 자성을 보면 누구든지 깨달음을 성취하여 우주와 하나되는 임심(一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황본 단경>에서 육조 혜능스님께서는 "일체 만법이 모두 자기

### 화두는 나 · 부처 · 조사에 대한 의심

### 큰 의심은 큰 진리 보게하니

### 다 풀리고 나면 세상의 주인은 나

마음에 있는데 어찌 자기 마음 가운데를 좇아서 단박에 진여본성을 보지 않느냐? <보살계경>에 이르되 나의 본원자성이 청정하다고 하니,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모두 불도를 이루어 다시 본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화두선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화두선은 불교의 공부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개발해 냈지요.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성성적적(惺惺寂寂)하고 소소영영(昭昭靈靈)한 마음의 당체를 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두란 의심입니다. 화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고, 나를 의심하는 것이고, 부처와 조사를 의심하는 것이고, 또한 법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큰 의심이 큰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든다는 것은 의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다 풀리면 세상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은 자기 주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화두 또한 자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이 어렵다며 안할려고 합니다. 절에서도 신도들이 선을 어려워 하니까지도, 염불같은 걸로 포교한다고 하는데, 어려우나 쉬우나 선은 해야 합니다.

자기 주체를 세우는 가르침을 뻔 불교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은 누가 뭐래도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不立文字 教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이요, 최근에 일부 학자들이 전기(史據)를 대라고 하는데, 선의 근원인 삼처전심(三處傳心)은 <선문경>에 나옵니다. 화두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삼라만상이 왜 마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학적, 철학적 바탕도 있

# “믿음 견고하면 단박에 깨달아 거두고 놓음 한결 같아라”



◇중성스님은 '화두선이 바른길'임을 힘주어 강조한다.

아야 화두를 들 수 있습니다. '왜 근본이 마음인가'라는 원리를 안 뒤에 참선을 해야 해요.

성철선사께서 백일법문을 하셨는데, 모두 교학의 핵심인 중도(中道)를 말씀하셨습니다. 화엄, 천태, 화두 드는 법, 과학 등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좌들로 하여금 선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일법문을 하신 겁니다.

선 수행자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식을 찾아 떠나면 만행은 선가의 불문율이요, 문산선사께서는 반드시 견성하고 문자에도 밝은, 종설(宗說)에도 능통한 대종장(大宗匠)을 찾아 단련하여 법기를 이룰 것이요, 조금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행해(行解)가 상응해야 함을 조사스님들이 역설하신 것입니다.

## 간(肝)이 건강하면 지방간, 간경화, 간암 예방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옹달머리와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허무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원거 9기마를 달은 뒤 원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팔삭에 문어문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양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병의원 중생에게 영기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재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이 영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기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쳐우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기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양기를 깨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기가 새우하고 새우를 갈아먹는 모습
- 노릇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기가 떠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영기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 무병 · 신병으로 고통받는분
- 마귀에 놀리고 현몽으로 잠 못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림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절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관절염(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돼야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웅(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